

♥♥소식란♥♥

선교회 특별활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양로원 예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월: Oradell 양로원 / 조미경 집사 인도, 박송이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이문웅 권사(색소폰)
Rochelle Park 양로원 /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Norwood, Buckingham(1st Fl) / 박문희 집사 인도,
김희선 집사 반주
Old Tappan, Sunrise /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송재현 목사(클라리넷), 정은영 사모(플룻)

◇화: Cresskill, Sunrise / 조미경 집사 인도, 강희집사,
이문웅 권사(색소폰)
Wayne, View / 이에리사 사모 인도, 신은혜 집사 반주
The Lillian Booth Artist's Home / 니콜 오 전도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비아울린)
Park Ridge, Atrium Post Acute Care / 이승희 집사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수: Paramus, Sunrise / 어혜숙 권사 인도,
설국환 전도사, 에스터 양 전도사 설교
한아정 집사 반주,
양미영 집사(플룻), 고하나(첼로)
Tenafly, County Manor / 김금화 집사 인도, 이경자 사모,
이연옥 반주
Norwood, Buckingham / Jeannie Hwang 선생 인도,
최성화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이문웅 권사(색소폰)

◇목: New Milford 양로원 /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Norwood 은혜 양로원 / 박경옥 권사 인도, 문행희 집사 반주
Rockleigh 양로원 / 김금화 집사 인도, 이수지 집사,
최수현 집사 반주
Wayne, Atrium / 김진옥 집사 인도, 박미경 집사 반주
Oakland, Health Care Center / 정준임 집사 인도,
한자경 집사 반주
Emerson Armenian 양로원 / Maria Kim 선생 인도,
문주미 집사 반주,
이문웅 권사(색소폰)

◇금: Paramus, The Cupola / 이미혜 집사 인도, 설국환 전도사 설교,
전원옥 사모 반주, 양미영 집사(플룻)
버겐 병원 내 정신병동 / 서연희/양승화 권사 인도,
임향화 집사 / 한정아 집사 반주
Westwood, Care One / Brenda 조 집사 인도,
Soo Park 선생 반주
Park Ridge, Atrium Senior Living / 박경옥 권사,
김선애 집사 인도,
박가희 집사 반주
한국 요양원5동 /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일: The Lillian Booth Artist's Home / Metro Church Member

* 2015년 연말 사역은 12월 23일(수)까지 마칩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2016년 1월 5일(화), 11:00 am에 포트리 베다니 교회에서 선한 이웃 선교회 신년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든 봉사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30 Main Street, Fort Lee, NJ)
* 2016년 새해 사역은 1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차질 없도록 유념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부터 선한 이웃 선교회 뉴스레터는 년 4회 발행됨을 알립니다.
2월, 5월, 9월, 12월에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 볼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우편물 주소 변경: 저희 선한이웃 선교회의 Mailing 주소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Good Neighbor Ministry : P. O. Box 110, Closter, NJ 07624
* 피아노 기증 / Oakland Health Care Center

보라 저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10)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th made ...
점심 후의 나른한 오후 시간이지만 마이크가 필요 없는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카링카랑한 우리 정준임 집사님의 찬양반도가 방을 가득 채운다. 봉사자나 예배드리는 어르신들이나 다 같이 어린아이들처럼 기쁘게 신나게 손뼉 치며 월요일의 오후를 맞이한다. 정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시고 기쁘게 살라고 주신 신나는 바로 그날이다.

Rochelle Park 양로원에 올 때마다 나는 부흥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스태프들까지도 우리의 작은 부흥회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때로는 Solo도 하며 뜨거운 예배를 함께 드린다. 찬양이 한 곡씩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고백하며 불편한 몸으로 손뼉 치며 잘 안 나오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부르는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어찌 귀하게 받으시지 않으랴!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대개 Asian, Afro-American, Hispanic 들이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듯이 이분들의 마음은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갈급하기에 언제나 은혜가 넘친다.

내게 월요일은 성가대 지휘자의 월요병으로 피곤한 날이다. 게다가 양로원에 오기 전에 다른 합창단을 두 시간 지도하고 오기 때문에 정말 지칠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많은 눈동자를 마주 대할 때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손잡아주시는 그 마음에 나의 가슴은 뭉클해진다. 처음에 갔을 때 예배시간에 그 방을 지나서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가시던 한 할머니께서 어느 날 슬며시 들어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정말 내 마음이 기뻤다. 매번 오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 그 할머니의 심령에 예배의 문이 열린 것 같았다.

수년 전의 어느 교회 모임에서 얼마 전에 태계하신 김명신 권사님을 봤다. 내게 “아콜라 교회의 지휘자지요?” 하시며 “거기서 양로원 한 곳 맡아서 봉사하지 그래요.” 하시는 것이다. 교회에 여쭤보니 좀 힘들겠다 하여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고 말았다. 그러다가 둘째 딸이 선한 이웃 양상불에 참여하면서 우리 가정과 Good Neighbor Ministry(GNM)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김 권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Dunkin Donuts 가게에서 얘기를 나누곤 하면서 참으로 귀한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

게다가 Good Neighbor Ensemble의 정기 연주회에서 봉사자들과 학부형들의 합창을 지휘할 귀한 기회도 주셨다.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아 연주 날까지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맘

졸이고 연습이 너무 부족한 분들이 실수나 하지 않을까 염려 하며 속 태웠지만 정말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주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빚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니 찬양 부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찬송 때처럼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과 목소리가 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케 하시겠다던 주님, 우리의 찬양 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닐 때 연세 세브란스병원의 입원실을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성가대에 들어가서 1주일에 한 번씩 병실을 돌곤 했다. 지금의 양로원 사역과는 다르지만, 그때에도 예배와 찬양의 능력을 많이 느끼곤 했다. 방금 운명하신 어느 할머니의 병실을 지나는데 가족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찬양해 달라고 하여 가족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였다. 요즘 양로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곤 한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양로원 예배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전국소망을 갖게 해줄 수 있음에 정말 보람을 느낀다.

우리 예배의 Closing Song인 “Let me call you sweetheart”를 부를 땐 가끔 눈물이 난다. 피아노 치며 노래 부르다가 그분들의 눈과 마주치면, 그 눈빛 가운데 “고마워요.”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 노래가 한국이라면 어떤 노래가 될까요 생각한다. 1930년대 Bing Crosby가 불렀던 이 노래를 그분들은 매우 좋아하신다. 우리 양로원팀의 애꿎던 어리언 언니 윤희주 집사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며 그 살인적 (?) 미소를 띠고 한 분 한 분 안아주고 손을 잡아 주시는 것을 볼 때 이 예배의 시간은 그들에게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는 생명의 시간일 것이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만, 분명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 아들이다.”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이들 모두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다. 찬송가는 아니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고백 같아 크게 은혜를 받는다.

늦둥이 둘째 딸 아이로 인해 맷어진 인연이 하늘나라 갈 때 까지 계속되길 바라본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돋고 싶다. 우리 GNM이 진정 선한 이웃이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드린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

(A fish out of water)

어느 날 구역 성경 그룹 모임에서 정준임 집사님이 양로원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구역에 도움을 청했다. 우리는 정확한 사역 내용은 모르고 기꺼이 돋겠다고 승낙을 했다. 정작 참석해 보니 나는 어르신들과 친절하게 말을 주고받고 이름도 알고 이름도 불러주고 껴안고 사랑이 가득한 인사도 하는 정준임 집사님을 보고 이것은 내 성격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이런 사역은 분명히 나의 장기는 아니고 꼭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심정이었다. 그러나 여러 번 참석하고 보니 정준임 집사님처럼은 못하지만, 그냥 자리에 참석해 찬송가 장수를 찾아드리고 찬양으로 어르신들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찬란한 하늘나라를 보며 평화와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 떠밀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 거룩한 일을 하게 된 것처럼 억지로 시작한 선한 일이 열매 맷기를 바란다. 어르신들이 힘없이 있다가도 우리가 오면 반가워하고 찬송할 때는 눈에 생기가 돌고 즐겁게 찬송하는 것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낀다. 한 시간 동안 찬양 시간을 마치고 나가실 때 보면 얼굴들이 환해지고 우리에게 감사하다며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구나 하고 생각하니 어르신보다 나 자신이 은혜를 더 받는다.

창세기 47장에 말씀같이 야곱이 피난민으로서 식량 얻으러 온 처지로 세상을 호령하는 바로왕 앞에 나와 바로왕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던 것같이 이 사역을 발전시켜 우리도 영어도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이민자이지만 미국 사람들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명기 장로
Oakland 양로원 봉사자

그 종소리

종소리

나를 부르네

귓전을 맴도는 목소리

낮 익은 음성이네

그 종소리

목놓아 나를 부르더니

깨어나라고

어둠을 물리치라고

잠든 나를 흔들어 깨우네

파스한 손

지친 등을 다독이고

눈처럼 은총을 뿌려줄 때

평화가 내리네

평강의 왕 예수

은혜가 충만하네

그 목소리 온 세상 덮고

가난한 심령들 일어나

강물처럼 출렁이네

김 은자 권사/시인



<선한이웃 선교회/ Emerson Armenian Nursing Home>



<선한이웃 선교회 대표 정준임 집사/AWCA Leadership Award 수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양로원 사역

As a member of the Good Neighbor Ensemble since the eighth grade, I am extremely grateful for having been a part of such an amazing organization. Not only have I developed a passion for giving back to the community with my talents, but I have also been allowed to improve my chamber skills and refine my musical abilities. Furthermore, performing for senior citizens truly opened my eyes to a new aspect of community service. I learned that spreading joy through music really brightens up the atmospheres at these residencies. For instance, after a performance at the Old Tappan Sunrise, I remember being able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music with a grandmother of a conductor of the Metropolitan Opera Orchestra. I was ecstatic about being able to connect with her through a common passion, and her constant requests to have us come back and perform again demonstrated the genuinity of her happiness about our performance. One wish I have for my fellow ensemble members is for them to gratefully accept the compliments from the senior citizens after our performances, and maybe even converse with them as well. They are all people who have unique and interesting stories to tell, and they genuinely appreciate what we do for them!

This past year, the Good Neighbor Ensemble has experienced drastic changes. However, some of the adaptations this ensemble had to face only helped it for the better. For example, our new conductor Dongmin Kim has made this ensemble sound the best it has ever sounded before, and I truly appreciate having such a hardworking and passionate conductor like him. He truly wants the best for the ensemble, and he helped us dramatically improve from where we were before in previous years. Additionally, the organization had to face the loss of our beloved former president, 김명신 권사님. To this day, I miss her dearly, as she had shown me why one should have a passion for serving the community through her past Wednesday morning sermons at the Paramus Sunrise Nursing home. I pray that she will continue to watch over us and the organization that she has started, and I also pray that we will be able to successfully continue her legacy into the future. With our new ministry president, 정준임 대표님, I know that this ministry is in good hands. I look forward to many more experiences with my fellow peers during my final year in this ensemble.

Hannah Ko

BCA 12th

Member of Good Neighbor Ensemble



<선한이웃 양상불 연주/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Englewood>



<선한이웃 양상불 연주/ Oakland Care Center>



<선한이웃 양상불 연주/ 2015 추석맞이 대잔치 / Overpeck Park>